

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 기독교시민단체연대 출범 기자회견

2021년 10월 7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

실시간 중계  YouTube 



함께하는 단체 및 그룹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법률가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영등포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사회복지/장애인/여성/통일 전문가 그룹

[출범 기자회견]

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
기독교시민단체연대

◆ 일시 : 2021년 10월 7일(목) 오전 11시 ~ 12시

◆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 순서

시간		순서	담당자
11:00~11:10	10분	개회 기자회견 순서 소개	이성영 (희년함께 상임대표)
11:10~11:20	10분	인사말	양재성 (기환연 상임대표)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11:20~11:35	15분	기자회견문 낭독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 백성에게"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11:35~11:45	10분	함께하는 그룹 및 활동 계획 소개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장)
11:45~12:00	15분	질의 응답	이성영 (희년함께 상임대표)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 함께하는 단체 및 그룹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법률가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영등포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여성/장애인/통일 분야 전문가 그룹

◆ 문의

02-794-6200 김현아 사무국장, 이명진 간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교단체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 백성에게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예비 후보들이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들은 각자 더 높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자당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사활을 건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공방은 지금껏 각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직을 거쳐오면서 시행했던 정책의 공과, 각종 비리와 범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검증 없는 일방적 주장들만 충돌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은 대선 후보들은 물론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대선캠프와 정당들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선 경선 과정이 과도하게 후보들의 과거에만 집중되어 각 후보와 정당들이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단지 ‘어떤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방향과 비전을 정비하고 합의하는 기회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성원들이 고통 분담과 상생의 방안에 대해 숙의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선 과정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남북한 전쟁 위협 해소와 평화 증진, 미중 갈등의 위기 속 균형 외교,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 입시고통의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대한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 위기의 본질과 해결 방안, 나아갈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나 이념적인 색깔론, 부동산 투기 심리 자극 등 이기주의와 물신주의가 선거를 지배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지역감정이나 색깔론, 물신주의라는 큰 흐름에 묻혀 늘 작은 목소리로만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 국가의 비전과 정책 대안의 각축장이 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정치의식과 정치문화가 원인이지만, 기독교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독재 시대에는 정치적 상황에 침묵으로 동조하다가 민주화 이후에는 장로 대통령 만들기, 특정 이념에 편승하기, 한두 가지 이슈에 과몰입하는 모습을 취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데 기독교가 기여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구 사회 속에서 나타난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정의로운 사법체계,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 복지체제는 여전히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고, 한국 기독교 또한 개화와 계몽, 독립과 민족의식 고취, 국가 재건, 민주화와 인권 등 한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계승하여 기독시민단체들과 기독전문인들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 각 영역에 퍼져 있는 불의와 탐욕, 이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왔던 연구와 구체적인 실천 성과들을 모아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각 분야의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여러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적 일관성을 가지고 대선 정국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종교생활과 개인의 도덕적 영역에만 적용하던 것에서 우리가 속한 정치와 경제, 사회의 여러 영역에 확장하여 적용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몇 가지 구호에 휩쓸리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들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드러낼 방법을 고민하고, 그에 근접한 정당과 후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제안 속에 담긴 기독교적 가치와 지혜가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의롭고, 약자를 보호하며,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곳으로 만드는 건강한 정책 경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제안이 기독교인만의 가치와 이익을 사회에 강요하는 치우친 종교적 이기심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탁월성을 가질 때 정치권도 무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책 공약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타 종교인들과 다양한 가치를 가진 그룹들이 자신들의 선한 가치로 모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고질적인 정파 싸움, 이념 싸움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20대 대선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교시민단체연대(이하 대선공약연대)”가 논의가 되었고, 오늘 그 취지와 출범을 알립니다. 대선공약연대는 11월 말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필요한 10가지 영역의 100가지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려 합니다. 이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서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들을 판단하고 투표하는 근거로 삼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이 공약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의 지혜를 충분히 담은 것인지’ 논쟁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우리가 제안한 공약들을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공약과 비교하고 또 다른 여러 이익 집단과 학계나 일반 시민단체들에서 제시한 공약들과 비교하며 선택할 것입니다.

모두 다 좋고, 그러한 토론은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의식과 정책 역량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온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대선공약연대”를 통해 모인 기독교시민단체들과 기독교전문인들은 그 동안의 연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성경의 우물에서 길어내고 정교하게 다듬어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교시민단체연대 일동

◆ 함께 하는 단체 및 전문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산업화로 인한 공해가 사회 문제로 등장한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997년부터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설기관인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를 푸르게 가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법률가회(CLF)

법률 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기독교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법률가들의 운동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청년운동 등 5개 본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자 및 노숙인들과 함께하며 생명, 평화, 정의를 사랑하며 협동공동체를 실천합니다.

좋은교사운동

기독교사를 깨워 좋은교사로 세우고 기독교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직사회를 만들며 교육과 사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기독교사 단체 연합운동입니다.

희년함께

희년함께는 모두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지공주의(地公主義)에 기초한 토지가치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세우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하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희년에 기초한 공정국가대안체제로 통합하도록 힘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중운

(현)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김예원

(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윤환철

(현)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 남북나눔운동 사무총장

◆ 활동 계획

2021년 9월 9일

- 연대 회의
- 대선공약연대 결성 취지 공유 및 활동계획 논의



2021년 10월 7일

- 출범식 (10/7 11시, 한국기독교교회관)
- 대선공약연대 출범 및 선언문 발표



2021년 10월 7일 ~ 11월 하순

- 각 영역별 공약 개발 및 취합
- <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집> 발간



12월 초순

-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공약집 및 질의서 발송
- '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발표 세미나

◆ 문의 cemk@hanmail.net 02-794-6200 김현아 사무국장, 이명진 간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